

인사말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1970년 불교미술전람회로 시작하여 한국미술의 전통과 불교미술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50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문화예술에 자리한 불교미술의 기여와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공모전과 기획전을 거듭하였고, 오랜 결실들을 모아 세 번째 기획전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미술은 부처님의 마음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구현하여 대중들에게 안내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가르침을 새기고 따르겠다는 서원의 실천이자 수행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는 예경의 대상이자 감화의 대상으로 작가의 부단한 연구와 수행정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정신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불교미술은 예술적 아름다움의 추구뿐만 아니라,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 깨우침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교화의 예술로서 시대마다의 간절함을 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현시대 또한 천 년의 수승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와 지평을 열어가는 시간이어야 하고, 앞으로 천년의 인연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생생하게 담은 올해의 불교미술대전은 전통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감각, 종교성, 예술성을 간직한 창작의 결실로써 21세기 우리와 함께하는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오랜 정진의 마음을 나누며 불교미술의 발전을 이끌고, 소중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전해오신 작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수고를 다해주신 운영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며, 오늘의 인연과 공덕이 우리 사회를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2560(2016)년 09월 07일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